소비자들 "청소 서비스 품질 미흡"

소비자원 '청소대행 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결과

청소 결과 확인용 체크리스트 도입 등 이뤄져야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온라인을 통한 청소 중개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청소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지난 8일 발표한 '청소대행서비스 소비자 이용 실태'에 따르면 '청소 서비스 품질 미흡', '가재도구 파손' 등으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

최근 3년(2018년~2020년)간 접수된 청소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220건으로, 2020년에는 96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4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서비스품질 미흡'이 44.1%(9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전제품·가구 등 가재도구 파손·훼손' 26.4%(58건), '추가요금 청구' 12.3%(27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불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서비스 품질 미흡'과 관련해 사업자의 사후서비스(A/S) 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8개 청소대행서비스 사업자 가운데 6개 사업자가 재청소 또는 일부 대금 환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중 2개 사업자는 A/S를 받기 위한 이의제기기간을 청소 당일로 제한하고 있었다. 서비스 품질 관련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 상태를 검수할 수 있는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이의제기기간도 서비스 완료 후 최소 24시간 이상 보장할 필요가 있다.

청소 중 가재도구 파손·훼손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 8개 사업자 중 직접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고지한 사업자는 없었다. 특히 5개 온라인 중개 사업자는 모두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사실만 고지하고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적정한 배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책임 강화가 요구된다.

한편 '기본요금 외 추가요금 청구'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 등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 사업자는 8개 중 4개에 불과했다. 추가요금 청구에 따른 소비자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눈에 띄기 쉬운 곳에 해당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8개 사업자의 위약금 기준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2개 사업자의 위약금 수준이 '청소 당일 계약 해제 시 환급 불가'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과도했다. 반면 사업자 사정으로 계약 해제 시에는 7개 사업자가 위약금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조사대상 소비자의 68.4%(342명)는 '온라인 중개 사업자를 통해', 22.4%(112명)는 직접 청소대행서비스 업체에 연락해 업체를 선정했다고 응답했다.

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가장 설명이 미흡했던 거래조건은 '추가요금 청구 가능성(3.52점)'으로 '청소인원(3.82점)', '청소소요시간'(3.86점)과 '청소범위(3.86점)', '청소대금 지급(4.06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대행서비스 사업자에게 청소 결과 확인용 체크리스트 도입, 손해배상 책임의 구체적 명시, 위약금 기준 개선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계약 전에 추가요금, 위약금 등의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파손되기 쉬운 물건은 따로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이영태 기자

전북농협은 지난 10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추석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지내지 못하는 전북동부보훈지청 재가복지서비스 대상 50가정에 우리농산물로 만든 송편 등을 전달하며 명절의 훈훈한 정을 나눴다.

"훈훈한 추석 명절 되시길"

전북농협, 보훈가정에 송편 전달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지난 10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추석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지내지 못하는 전북동부보훈지청(지청장 이윤심) 재가복지서비스 대상 50가정에 우리농산물로 만든 송편 등을 전달하며 명절의 훈훈한 정을 나눴다.

보훈청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인 이모 어르신은 "올 추석은 아들과 함께 하지 못해 많이 외로웠는데, 농협에서 명절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해줘 위로가 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명절의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싶어 나눔을 진행하게 됐다"며 "전북농협은 지역사회와 농업인·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농협은 보훈가족 식사대접, 우리농산물 나눔, 이불전달 등 보훈가족 나눔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아울러, 노후화로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정의 도배·장판 교체 봉사활동 등도 꾸준히 실시해 2021년 보훈청으로부터 '보훈가족 복지증진 공로자 포상'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김윤상 기자

노동력 부족 해결… 밭농업기계 종합연구동 운영 본격

작업기 정밀 제어 등

3개 실험실 갖춰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농촌 노동력 부족문제 해결을 목표로 밭농업기계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밭농업기계 종합연구동'을 준공, 운영에 들어갔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밭농업기계 종합연구동은 국립농업과학원 내 총 1,488㎡면적에 폭 20m, 길이 60m 크기로 지어졌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3년여에 걸친 공사 끝에 준공됐으며, 작업기 정밀 제어, 노지 디지털 복합제어, 첨단 밭농업기계 성능 실험실 등 3개 실험실을 갖추고 있다.

작업기 정밀 제어 실험실은 유공압 모의실험(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모의실험장치(시뮬레이터)를 활용해 농작업기 유공압 제어 시스템 개발과 성능시험에 활용된다. 노지 디지털 복합제어 실험실은 농업환경과 농작업 자료를 실시간 수집·분석하고, 감지기(센서)·영상 기반 제어 등 노지 디지털 농업 기초·요소 기술개발에 이용된다. 첨단 밭농업기계 성능 실험실에서는 모사 풍동을 활용한 파종·방제 작업 등 드론용 농작업기 개발과 밭농업기계 시험장치, 시작기 성능시험 등 첨단 밭농업기계의 성능시험이 이뤄진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밭농업기계의 주요 기종을 전시해 현대 농기계 개발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지난 9일 농촌진흥청 허태웅 청장이 밭농업기계 종합연구동 준공 현장에서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앞으로 계절과 날씨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밭농업기계 개발과 성능 시험을 할 수 있는 토경 온실도 마련해 밭농업기계 개발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밭농업기계화연구팀 김영근 팀장은 "밭농업기계와 농작업기 관련 첨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종합 연구시설이 준공돼 디지털 농업 기초·요소 기술 연구와 첨단 밭농업기계 개발 기반이 마련됐다"며 "첨단 밭농업기계를 계속 개발하고 실용화해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심화되고 있는 농촌 노동력 부족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은행, 하반기 신입직원 블라인드 채용

AI 면접 · 온라인 필기시험 진행… 17일까지 원서 인터넷 접수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이달 11일부터 청년일자리 창출과 신입직원 채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도 하반기 전북은행 신입직원 채용'을 실시한다.

전북은행 채용전용 홈페이지(jbbank.recruiter.co.kr) 통해 접수되는 이번 채용은 이달 11일부터 17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

모집분야는 금융영업 및 금융공학으로 분야는 디지털·IT, 통계로 도내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는 지역인재, 그 외 지역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는 일반인재로 구분해 채용한다.

이달 11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전형 이후 AI역량검사를 진행하며, 이후 온라인 필기시험, 1·2차 면접전형 등을 거쳐 11월초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면접전형 등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하되,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이번 채용은 직무에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 인재를 선발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며 지원자의 실력(직무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여건이 그 어느때보다 어렵지만 청년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전북은행의 새로운 100년을 함께할 젊은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태 기자

새만금 첨단산업중심

복합단지 조성 재공모 마감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7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한 '새만금 첨단산업중심 복합단지조성 개발사업' 재공모 접수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지난 공모(5.7~7.5)에 1개 컨소시엄(연합체)이 제안서를 접수했으나, 평가결과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돼 재공모를 실시했다.

이번 재공모에는 에이플러스컨소시엄(대표사 ㈜ 한양) 1개사가 제안서를 접수했다.

접수된 사업제안서는 사전평가를 거쳐 본평가인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개발계획과 재무·운영계획 등을 평가한다.

평가심의위원회는 10인 이상의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돼 이뤄지며,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50% 이상이 되도록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평가결과에 따라, 10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업협약을 체결해 사업시행자 지정 등 적극행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새만금 복합개발용지 내 공공주도로 진행 중인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이어, 민간주도로 추진될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곳에 약 250만㎡에 달하는 친환경 첨단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2021 전북도 스타소상공인 선정

익산 '아임', 영예의 대상

2021년 전북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이 선정됐다.

지난 10일 전북도는 올해 10번째를 맞는 '전라북도 스타소상공인 선정 공개오디션'을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상에는 대상에는 '주식회사 아임(대표 성열규)', 최우수상 2팀에는 '(유)이티울현푸드(대표 신현주)', '떼구르(대표 오세희)'가 최고 스타소상공인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에는 '액티부키(대표 이동원)', 'GS코리아(대표 김세용)', '이레농원(대표 박연미)' 3개 업체가 선정됐다.

지난 2012년 국내 최초로 시작한 전라북도 스타소상공인 육성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도민평가단의 투표로 선정해 비즈니스 롤모델로 육성하는 제도다.

지난 3월 전북도와 전라북도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는 2021년도 스타소상공인 참여 업체를 공개 모집했다. 모집 결과 1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 10일 열린 공개 오디션은 서류심사, 현장심사, 발표심사 등 3차례 예선 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공개오디션은 업체별 소개 영상과 발표, 심사위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전문심사위원 5명과 도민심사위원 150여 명이 아이템 경쟁력과 차별성, 성장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

대상을 수상한 주식회사 아임(대표 성열규)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유)이티울현푸드(대표 신현주), 떼구르(대표 오세희)에게는 '전라북도 스타소상공인'이 쓰여진 현판을 수여한다. /유호상 기자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온라인 간담회 화상 영상 캡처. 〈사진=aT 제공〉

aT,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간담회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이하 'aT')는 지난 10일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 주요 수출국 한상기업들과 함께 농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북미지역 20개 지역협회 총 2만여 회원을 보유한 국제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 김주한 회장을 비롯해 한상기업 최초로 베트남 100대 우수 브랜드에 선정된 K&K Global Trading 고상구 회장 등 5개국 6명의 한상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국가별 현지 동향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각 기업 대표들은 코로나 이후 높아진 한국의 위상과 K-Food의 선전을 전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현지 홍보마케팅에 제약이 따르는 상황에서 유통의 최일선에 있는 한상기업들의 역할이 크다"며 "K-Food가 현지에서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라며 공사도 한상기업의 사업확대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기후변화대응 · 신규 탄소흡수원 확대

서부산림청, 수자원공 금강유역본부와 수변림 조성 협약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지난 9일,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본부장 김세환)와 기후변화대응 및 신규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해 수변림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은 ▲수변림 조성 등 탄소저감활동 및 수질오염정화 등에 관한사항 ▲산림분야 및 수자원보호사업 시행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관련 기술연구 및 업무활용에 관한 사항 등이다.

서부청은 금강유역본부와 용담댐 유휴토지에 2023년까지 약 9.5ha 면적의 수변림을 조성, 산림청의 탄소저감정책과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수질 목표달성을 위해 상호협력 할 예정이다.

조준규 서부청장은 "수변림 조성을 통해 수질 개선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용담호에 아름다운 경관림이 조성되어 지역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신규 탄소흡수원으로써 탄소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